진안가위박물관을 알리다

진안군, 한국퀼트페스티벌 참가… 황새가위 등 총 38점 홍보
10~1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서 열려… 수도권 홍보효과 기대

진안가위박물관은 7일 2018 한국퀼트페스티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9번째 개최되는 한국퀼트페스티벌(QFIK : Quilt Festival in Korea)은 (사)한국퀼트연합(CQA)이 주최하고 한국퀼트페스티벌 준비위원회가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다. 한국퀼트페스티벌은 국내 최대 규모의 퀼트전문페스티벌로, 국내외의 우수한 퀼트 작품 전시를 통해 한국 퀼트의 대중화 및 발전을 꾀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며, 작은 규모의 작가, 공방 및 퀼트 업체 등에게 홍보와 판촉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퀼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과의 소통과 저변확대를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행사에 진안가위박물관은 퀼트 작가와 관련 단체, 퀼트에 관심 있는 관람객들에게 진안가위를 홍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올해 초부터 사단법인 퀼트연합과 특별전시회를 준비하면서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됐다. 특히 '퀼트(quilt)'라는 의미가'이불이나 쿠션 등에 누비질을 하여 무늬를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으로 바늘과 실, 그리고 가위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예술작업인 퀼트는 가위와 땔래야 땔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가위라는 독창적인 컨텐츠를 전시하는 진안가위박물관은 황새가위, 포도가위 등 총 38점의 가위와 가위관련 퀼트작품을 전시하여 업계 관계자와 수도권 일반인들에게 큰 홍보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전시를 함께 추진한 사)한국퀼트연합 이솔 실용전통공예분과장은 "지난 4월 한옥마을에서 이루어진 퀼트 테마전과 이번 2018한국퀼트페스티벌을 통해 앞으로도 진안가위를 알리는 노력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테마전을 시작으로 찾아오는 박물관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퀼트와 연계한 찾아가는 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진안가위박물관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가위박물관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18 한국퀼트페스티벌에 참가한다.

민주당 '무진장 상생협력' 발전선언

백경태 무주군수 후보
이항로 진안군수 후보
장영수 장수군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백경태 무주군수 후보·이항로 진안군수 후보·장영수 장수군수 후보가 7일 무주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진장' 상생협력 발전을 선언했다.

이들은 안호영 국회의원(완, 진, 무, 장)과 함께한 자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분권과 자치의 지방정부 성공모델 조성 공동노력,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광네트워크 활성화, 동부권 경제사업 공동추진, 농산어촌 교육거버넌스 구축, 귀농귀촌 정책, 문화예술 체육교류 등 정책의 상생협력, 합리적 대화를 통한 지역간 갈등해소 및 긴급재난 사고시 최우선적인 협력과 지원, 문화와 예술, 체육 교류를 공동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백경태 무주군수 후보·이항로 진안군수 후보·장영수 장수군수 후보가 7일 무주군청 기자실에서 '무진장' 상생협력 발전을 선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무진장 상생협력발전기구를 구성해 동부산악권을 전북 혁신 발전의 핵심 권역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이번 지방선거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의 초석을 놓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며 "무진장 3개 군 민주당 군수 후보들이 삼각편대를 구성해 협력행정을 펼쳐 나갈 때 주민의 삶과 자치권을 향상시키는 다각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태권도원체리 따기 체험 행사

6월 9일 선착순 100명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250여 그루의 체리나무가 있는 태권도원 체리밭에서 가족·친구·연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태권도원 체리따리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9일 오후 3시, 태권도원 체리밭에서는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체리따기 체험을 진행한다. 체험을 희망하는 방문객은 당일 오전 10시부터 태권도원 매표소에서 "체리따기 체험권"을 선착순으로 구입 후 오후 3시에 태권도원 셔틀버스를 타고 체험장인 체리밭으로 이동하면 된다.

체리밭에서는 본격적인 체리따기 체험 전에 유의사항 등의 설명을 청취 후, 개인별로 지급되는 체험용 컵에 체리를 따서 담으면 된다.

재단 박노신 사업본부장은 "태권도원의 다양한 태권도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자연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체험이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읍행정복지센터, 사례연구 공모전 선정

진안군 진안읍행정복지센터(읍장 전춘성)가 최근 사례관리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례연구 공모전에 선정되어 전문가(서강대학교 이기연 교수)의 슈퍼비전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전국의 공공부문 관리사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진안읍을 포함 전국의 3개 읍면동이 선정되어 향후 공공부문 사례관리자 교육교재에 사례가 실리게 된다.

공모전에 선정된 진안읍 관리사례는 가정기능의 약화와 가정해체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조손가구, 한부모가구 등 돌봄 취약 가구를 대표하는 사례다. 특히 아동의 수술비 지원, 언어치료 등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가시적 사례관리를 바탕으로 전문 자원봉사자 연결을 통해 아동양육, 돌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부분까지 지속적, 체계적인 접근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진안읍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맞춤형 사례관리는 위기가구 등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욕구진단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지속적,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진안읍 담당자는 "슈퍼비전을 통해 개별 가구를 중심으로 한 미시적 차원에서 지역공동체가 함께하는 거시적 접근으로의 확장이 중요함을 새삼 느꼈다"며, "올해 수립될 제4기(2019~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맞춤형 사례관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명품 농·특산물 홍보

2018년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 참가

장수군은 대표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일산 킨텍스에서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에 참가했다.

올해로 세 번째 개최되는 '2018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에 군 대표 농·특산물인 사과를 홍보 및 전시 판매할 계획이다.

이번 페스티벌은 명품특산물관을 비롯해 지자체 비즈니스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특산물 향토기업관, 이벤트 전시관 등으로 구성되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판매 뿐만 아니라, 지역상품의 세일즈 마케팅을 위한 비즈니스 박람회로써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농·특산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리산권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있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과도 연계하여 농·특산물 뿐만 아니라 관광 홍보부스도 같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관계자는 "장수군의 농·특산물 판로확대와 브랜드 가치를 고취시키고 지리산권의 청정 농·특산물이라는 점을 동시에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메아리

무주군, 2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무주군은 7일 군청 통합방위상황실에서 2018년 2분기 무주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정수 무주군수를 비롯한 경찰서와 군부대, 소방서 등 유관기관 및 사회 단체장, 유관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최근 평화통일의 화해 흐름에 맞춰 통일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짚어볼 수 있도록 제작된 동영상을 시청하고, 상반기 무주군 통합방위 추진사항과 군사대비 태세 성과분석 내용,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 지역안보를 위한 유관기관 간 역할을 공유하고 협조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탄소 볼라드 85개 설치 완료

진안군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탄소 볼라드 85개를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볼라드는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법에 따라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와 차량 진출입로 주변 등 보도내에 차량진입을 막는 시설물이다.

탄소볼라드는 높이 87㎝, 지름 12㎝, 사이 간격은 150㎝정도로 보행자가 쉽게 식별이 가능하고 탄소섬유로 구성되어 차량 충격 시 최대 60도 이상 기울일 수 있어 충격 완화 효과가 있다.

진안군은 불법주정차로 보행자와 휠체어·유모차·전동차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읍내 쌍다리 일원 등에 탄소 볼라드를 대대적으로 설치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과 주민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복지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무주군은 7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전 직원 대상 2018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부정 · 부패행위 등 비위행위를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정승호 강사를 초청해 2시간 동안 사례 위주의 교육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무주군 공직자들은 △공직자 행동강령을 비롯해 △반부패 청렴정책 및 공직자의 기본자세, △청탁금지법에 관한 사례별 해설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전문선 기자